

남원시 관광개발사업 비전 제시

14일 공청회 개최 기본구상안 설명·시민 의견 수렴

남원시가 대한민국의 관광 메카로 만들기 위한 미래 남원의 관광개발사업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남원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남원관광지 관문 설치 ▲ 지리산 산악철도 등 주요 관광개발사업 대한 기본구상안을 설명하고 시의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남원관광지 관문 설치 ▲ 지리산 산악철도 등 주요 관광개발사업 대한 기본구상안을 설명하고 시의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관광투원 앞 요천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투원 언저리에 유입되는 옛 물길 복원을 통해 남원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거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관광투원 앞 요천로는 남원시 내권역 주요 간선도로로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아 관광투원과 남원관광지? 춘향테마파크를 단절하는 문제점이 제

기되어 왔다.

이에 요천로를 관광의 주요 핵심동선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통계획과 보행자 중심의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여 관광투원 방문객을 관광지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관광지 입구를 새로 단장하기 위해 '관광지 관문 설치사업'을 구상중이다.

이 사업은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춘향테마파크 등의 입구에 관광지를 부각하고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첫 이미지부터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친환경 미래 녹색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를 사범도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리산 산악철도사업은 육묘장~정령치~달궁삼거리를 잇는 1구간(18km)과 달궁삼거리~성삼재~구례 천은사를 잇는 2구간(16km)에 총 34km 지방도에 산악철도를 설치하여 지리산을 4

계절 관광 자원화하려는 메가 프로젝트이다.

시는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국토부의 철도기술연구사업에 산악철도 시범도입(291억원) 사업을 적극 건의하여 2016년 1차년도 예산(10억원)을 확보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2차년도 사업비(10억원) 정도는 기재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남원관광지 관문 설치 ▲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한 기본 계획안에 대해 용역 종료로 금년내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남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착공

국비 12억원 투자

순창군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획기적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하반기 CCTV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하고 군비를 포함 총 12억원을 투자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그동안 13개 부서에서 용도별로 설치되어 각각 운영·관리되고 있는 아동보호, 방범, 재난, 불법쓰레기 투기, 주차차 단속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주차차단속용 CCTV를 업무시간 종료 후 방범용으로 활용하는 등 운영에 다양화를 통해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올해 10월 안에는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365일 아동보호, 방범, 재난, 불법쓰레기 투기, 주차차 단속 등 CCTV 300여 대가 통합 운영된다.

군은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평일에는 관제요원 등 분야별 근무요원 3~4명과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주말과 야간에는 관제팀 2명

과 경찰관 1명이 근무하는 24시간 운영체계를 만들어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CCTV통합 관제 센터는 여성과 아이는 물론 전 군민이 안전한 순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체계를 만들어 군민이 안전한 순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영 기자



남원시, 장마철 재해취약분야 재점검

산사태위험지역 152개소 등 보수·보강 완료

남원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재해취약분야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시설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적극 대응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월 14일까지 재난취약시설인 인명피해 우려지역 9개소, 급경사지 68개소, 재해위험저수지 7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재해예경보시설 274개소, 산사태위험지역 15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내 설치된 가동보 및 수문 등 재난취약시설 주변에는 재해 예경보시설인 방송시설과 CCTV를 연내 설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하기로 했다.

또한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개 협업기능별 T/F팀을 가동,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24시간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시설 237개소와 재난예경보시설 274개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 관리하고, 7월부터 8월말까지 관내 물놀이 위험구역 10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20명을 배치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9월 30일까지 3개반 7명으로 T/F팀을 구성

하여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재난도우미 680명(이·통장, 돌보미, 공무원 등)이 밀착 관리토록하며 재해발생에 대비 구호물자, 이재민수용시설, 건설공사장의 점검을 강화하고 사유시설 관리와 풍수해보험 가입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관리책임제 운영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등 장마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재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난 예방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소를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나 읍면동사무소, 남원시에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명예군민 후보자 모집

이달 29일까지... '군민의장' 5개 부문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 군민의장'과 '명예군민' 수여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고창 군민의장'과 '명예군민'은 고창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인사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와 영예의 상징이다.

'군민의장'은 △문화체육관광 △산업근로장 △공익장 △애향장 △효열장 등 5개 부문이며 유관기관장, 학교장, 관내 각 사회단체장,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는 고창군 관내 거주자이거나 고창군 출신이어야 하며 후보자 추천 시 추천서, 공적조서, 기타 공적증빙자료 등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는 군청 자치행정과(063-560-2313)나 읍·면사무소 총무팀

에 접수하면 되고 추천된 후보자는 접수공고 마감 후 부문별 전문지식과 지역대표성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확정된다.

수상자는 '제55회 고창군민의장'인 오는 10월 6일 기념식에서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패 및 증서를 전달받게 된다.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등 타 지역 인사 중 고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도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인사에게 지난 1985년부터 군민의장을 수여해왔다.

지난해까지 136명이 군민의장을 수여했고, 명예군민증은 지난 2007년에 시작돼 10명에게 수여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문화의 전당 주변 'LED 장미정원' 조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며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고창군(군수 박우정) 문화의 전당 주변이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LED 장미정원'을 선보였다.

7월 군에 따르면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과 한옥마을과 다양한 문화시설이 집적해있는 문화의전당 앞 잔디광장에 가축,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LED 장미정원'을 조성했으며 물분수(물터널), 경관조명과 함께 군민행유 콘텐츠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LED 장미정원'은 총 4000여 송이로 구성됐으며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점등되고 있다.

이 장미정원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 설치한 순백색의 LED 조명과 같은 작품이다.

고창문화의전당은 지난 2008년 개관 이래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LED 장미정원' 조성으로 전당 주변에서 펼쳐지는 국악상설공연과 한옥마을상설공연 '도리화 귀경가세' 등과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LED 장미정원이 문화의전당과 고창읍성 주변을 환하게 밝히면서 공연감상의 즐거움을 더욱 키우고 품격 높은 문화체험 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언제 찾아와도 오감을 만족하는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시설사업소(063-560-80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효율적 성과관리제도 도입 워크숍

순창군이 군 조직을 효율적 성과관리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군정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BSC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5월 내부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 모인 직원 30여명은 전문가와 함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분임토의를 통하여 군의 전략맵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등 군정목표를 체계화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분임토의를 통하여 재구성한 전략목표와 부서별 업무목표를 다시 정리하여 이달 중순에 부서장과

함께 이를 최종확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개발한 170여개의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관리제도를 통하여 군정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이고 군민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만들기"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BSC 성과관리제도는 각종 주요성과를 균형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고객관점, 재무관점,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기업에서 도입하기 시작하여 점차 지차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순창=이왕영 기자

국립공원

임실 가시영경귀 크림 300개 기증

임실생약영농조합법인(대표 심재석)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말천방 들노래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가시영경귀 크림 300개를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삼계면 두월마을 축제위원회(대표 김재성)를 방문한 심재석 대표는 "주민 스스로 농경문화 발자취를 지키기 위해 개최하는 말천방 들노래 축제에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며, 가시영경귀 크림 300개를 기증했다.

말천방 들노래 한마당 축제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삼계면 두월마을 일원에서 열리며 축제 첫째 날인 9일은 농악놀이와 함께하는 말천방 들노래 현장시연 및 신민요 공연, 방문객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등이 개최되고 둘째 날인 10일은 마을옹기 깎기의 학술적 교육 및 만들어보기 체험, 농경문화 이해와 예절교육 등이 진행된다.

한편, 임실생약영농조합은 지난 1982년부터 약용작물을 연구해 온 30년의 전통과 역사를 다져온 생약 전문회사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장애인시설 나눔의숲 조성

순창군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숲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들의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인 동계면 주향의 집에 나눔 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눔 숲 조성사업은 복권기금(녹색자금)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특수교육시설에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돼 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주향의 집 나눔 숲에는 고목류 산딸나무 8종 17본, 관목류 꽃대강의 9종 1,260본을 식재해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했다. 평지가 등 솟아도 설치해 시설 이용자들이 이곳에서 쉬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군은 주향의집 나눔 숲 이외에도 지난 2013년도와 2015년도에 금과면 목동리 로템나무 숲, 쌍치면 용전리 함께사는 마을숲 등에 총 2억원을 투자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숲을 통한 치유를 선물하고 있다. /순창=이왕영 기자

임실군 고추생산자 연합회 워크숍

임실군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과산청 결고추유통센터(충북 괴산군 소재)에서 '임실군 고추생산자 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임실군 고추생산자연합회(회장 강호신)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관내 농협조합장, 생산농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관 및 회원들의 정보공유와 상호 소통의 장이 되었다.

또한, 충북지역 고추유통센터를 견학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선진 재배기술 습득을 통해 '군 고추가공센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키 위한 생산자 조직화 전략 마련 및 교육 등의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읍, 공·폐가 12곳 일제점검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 중앙지구대(대장 박남규)는 최근 문자마 범죄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대상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장소인 관내 공·폐가 12곳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공·폐가 출입 흔적여부, 주변 가로등 밝기 등 면밀히 진단하여 범죄 은신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공·폐가 점검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불안해소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박남규 지구대장은 "공·폐가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인 만큼 정밀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여성 및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